

# 세계 석유 감산활동 조정 요인은?

## 송유관 파손·미국 제재 위험 등 감산 계획 외 요인 영향

### 석유시장 재균형 목표치 근접...감산 완화 논의 가능성도

세계 석유의 감산활동이 높은 이행률을 보임에 따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에너지경제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수출기구(OPEC) 산유량은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리아의 생산량 감소와 OPEC 주도 감산 참여국의 높은 감산 이행률로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3200만b/d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OPEC의 지난달 원유 생산량은 전월 대비 7만b/d 줄어들었으며, 당초 OPEC이 합의한 생산쿼터보다 73만b/d 이상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나이지리아(-9만b/d), 베네수엘라(-5만b/d), 리비아(-2만b/d)의 5월 산유량이 전월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사우디(+6만b/d), 이라크(+5만b/d) 등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OPEC 전체 산유량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생산국별 조정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나이지리아는 Nembe Creek Trunk 송유관 파손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Shell사가 나이지리아산 Bonny Light 유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국가 경제위기로

석유 생산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간 기준 생산량(206만7000b/d)에 크게 못 미치는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또 리비아·이란·사우디·이라크 등 중동 지역 산유국들도 전력공급 차질,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험 등으로 인해 기준 생산량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 같은 석유 감산 기조에도 올해 세계 석유 수요는 OECD와 비OECD 국가에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144만b/d~165만b/d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상반기에는 석유 수요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만 하반기부터는 당초 예상보다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판단. 2018년 세계 석유 수요를 전월 전망치에서 11만b/d 하향 조정한 9918만b/d(전년 대비 144만b/d 증가)로 전망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계절적 요인(한파) ▲신규 정제설비 가동 개시(미국 등) ▲건조한 경제성장 등을 상승세의 근거로 제시했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세계 석유 수요를 지지했던 계절적 요인(한파)이 사라지고, 최근의 유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 한편 OECD 석유재고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3월 OECD 재고가 과거 5년 평균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OPEC 주도 감산 참여국들의 '석유시장 재균형' 목표가 거의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석유시장 재균형 목표는 OPEC과 비OPEC 감산참여국들은 OECD 석유재고를 과거 5년 평균 수준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약 180만b/d 감축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열린 '제171차 OPEC 정례총회'에서 합의됐다.

이와 관련 OPEC과 IEA는 지난 3월의 OECD 상업용 석유재고를 각각 28억2900만 배럴(전월 대비 1270만 배럴 감소), 28억1900만 배럴(전월 대비 2680만 배럴 감소)로 발표하면서, 5년 평균 재고와의 격차가 각각 900만 배럴, 800만 배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제174차 OPEC 정례총회'에서는 감산참여국들이 감산 완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OPEC 감산 모니터링위원회(JMCO)는 지난 4월 감산이행률이 152%라고 발표하면서, OPEC은 공급 부족에 대한 석유 수입·소비국의 불안을 알고 있으며 국제 석유시장의 안정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OPEC이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광국 기자 kimgg@

## 메르켈 총리 "EU, 美 관세에 보복 준비 중"

### "G7 회의, 타협 없을 것"...트럼프에 선전포고

주요 7개국(G7) 공동성명이 무산된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EU)이 미국의 관세에 맞설 것이라는 뜻을 밝히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ARD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EU 역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반복해서 바가지를 쓰지 않을 것"이라며 "행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도 수입 관세를 부과해 EU의 대응책에도 보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우선 그 자체를 막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그리고 EU가 다시 단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7은 전날 폐막하면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싸울 것을 명기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무역 문제에 있어 미국과의 큰 마찰에도 불

구하고 모든 G7 국가들이 "일치된 목소리로" 공동성명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G7 현장을 먼저 떠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공동성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른 국가가 우리의 농민과 노동자, 기업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그들이 자국의 제품을 미국에 무료로 보내는 동안 우리는 수십년간의 무역 불공정을 참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밝힌(미국의) 철회에 정신이 번쩍 들고 다소 우울하다"며 "이는 G7의 끝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은 더 이상 동맹국에 의존할 수 없다"며 "우리의 손에 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유럽뿐 아니라 일본, 캐나다와 함께 우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제사회의 문제에서 유럽이 더욱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며 "EU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재학 기자 j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G7 정상들 주요 7개국(G7) 정상과 관료들이 9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베크 라발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공개한 이 사진은 회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맨 오른쪽 하단)과 다른 정상들과의 불편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 트럼프, 석탄·원자력 발전소 지원 '즉각 조치' 지시

### 에너지 업계 "전력가격 상승시킬 것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석탄 화력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회복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AP통신과 다수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리크 페리 에너지 장관에게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소의 개발유지를 위한 지원을 취할 것을 지시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역시 성명을 통해 "석탄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가 퇴출당하면 국가 전력공급 체계가 저해되고 탄력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원들을 잃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 공급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도적인 공격과 자연재해로부터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

전, 경제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청정 에너지 대신 석탄 화력발전소를 지원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역시 석탄화력 등을 지원하는 조치는 전력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지역 송전업체에 국가에너지 공급 극대화과 국방 강화를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2년간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 단일 에너지부가 이 조치를 시행한다면 연방정부가 에너지 시장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례가 된다.

AP통신은 그들이 입수한 트럼프 행정부 문건에는 석탄 화력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가 재생에너지·천연가스와의 경쟁에서 밀려 추가로 조기 퇴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해서 해당 발전소의 환경 관련 법 준수 의무를 면제하고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전력 시장을 왜곡,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켜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미 패럴 미국풍력협회 부회장은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가 질서정연하게 물러난다면 전력공급은 비상상황을 맞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계획을 "비상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납세자들에게 경제성 없는 발전소를 구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에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며 "기존 석탄·원자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례 없이 에너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다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kimyj@

## 2018 일본은 지금...

◆日 요코하마시, 시내 초등학교 11개교에 ESS 설치 예정 = 요코하마시가 올해 안에 고호쿠구에 있는 초등학교 11개교에 ESS를 설치할 예정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요코하마시는 이번 사업을 이산화탄소 저감과 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전기사업자가 ESS를 원격으로 제어해 전력 수급 균형을 조정하고, 전력 피크 때는 수요를 억제시켜 발전 비용을 줄이는 가상 발전소(VPP) 시스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특히 ESS에는 비상시 방재 기능과 PC에 사용하는 전력이 보장돼 있어 재난이 발생할 경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설치하는 ESS의 전력량은 15kWh다. 평상시에는 재난 전원용으로 최소 3kWh 전력량을 확보하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방전 등으로 수급 균형을 조정한다. 요코하마시는 향후 4년 안에 초·중학교 70개교까지 설치를 확대하고, 공공시설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고 전했다.

◆지면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 '솔라 로드' 등 신기술이 주목받는다 = 태양광 패널을 지면에 설치하는 '솔라 로드'와 도보 시 생기는 진동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플로어' 등의 신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한 환경도시 도쿄'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솔라 로드와 발전 플로어 등의 신기술을 내년에 시험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쿄도는 지난 5월,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편의점 주창장에 노면형 태양광 패널 '솔라로드'를 설치했다. 특수 수지를 설치한 표면은 내구성이 높아 패널 위로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다. 편의점 관계자는 "1년에 1만6145 kWh의 발전이 가능해 가게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약 9%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 비용 절감이 과제 정부 백서 '안전보장은 후퇴' = 일본 정부는 최근 공개한 2017년 에너지 백서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발전 비용을 낮추고, 전력 수급을 조정하는 ESS 비용 삭감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원자력 발전소 가동 정지로 자급률이 저하되면서 일본 에너지 안전 보장 상태는 이전보다 후퇴했다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은 유럽보다 2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수준까지의 비용 절감이 불가피하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의해 발전량이 좌우되기 때문에 화력발전 등으로 이를 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ESS 단가를 낮추는 등 탈탄소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전망도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포함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5월에 정리한 새로운 에너지 기본 계획 초안에는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2030년의 전원 구성비에서 재생에너지를 22~24%까지 끌어올리자는 방침도 포함됐다.

원전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 향상과 방재, 배상 등의 대처, 원자력 기술, 인재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NGLISH 영국 미국 말문을 여는 스토리로 배우는 영어회화!

Lesson 53 Emergency (6)

A : Your father has had a serious heart attack.  
(당신 아버지는 심각한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We can't tell how bad it is at this point,  
(우리도 이 시점에서 얼마나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but he's alive and alert. (그러나 그는 살아있고 방심할 수 없는 상태예요.)  
Now, can you tell me anything about his medical history?  
(자 이제, 그의 병력에 대해 뭐든 말해주시겠어요?)

B : Uh, well, his health hasn't been very good for years.  
(그의 건강은 계속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수년간)  
He's been taking medicine for his (계속 약을 복용해왔어요.)

A : For—for his heart? (심장약인가요?)  
B : High blood pressure, I think. (고혈압인 것 같아요.)  
Is he gonna to be all right? (괜찮아지실까요?)

A : We don't know how much damage there is to the heart.  
(어느 정도의 손상이 심장에 가해졌는지 몰라요.)  
but we're doing everything we can. (그러나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겁니다.)

[Key Point] \* Now, can you tell me anything about his medical history? 어떤 의료적 조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로서 환자에 대해 확인하는 말. 지병이 있었다면 어떤 병에 대해 무슨 치료를 받아왔는지도 물어보겠지요? What meditation was he on?

[주요 표현] \*Your father has had a serious heart attack. (have a 증상 : have a stroke 뇌졸중, have a fever 열, have a runny nose 콧물... 주의! have a cold는 감기 걸렸다, 오한이 나는 증상은 have chills를 씁니다.) We can't tell how bad it is at this point. (I can't tell ; 그건 알 수 없습니다.) I can't tell I'm not a mechanic. 그럼 누가 잘 알아요? Who can tell? He's been taking medicine for his heart? (take medicine for ~에 대해 약을 복용하다.) You have a infection. You need to take some medicine for your cold.) Is he gonna to be all right? (괜찮을까요? 늘 be going to 랑 붙여서 한 단어처럼 연습.)

(자료 제공 : 문영미 시스스피킹(www.sisaspeaking.com))